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산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찬하 PSPD, 나무 : 참여연대 / 찬바람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 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사무국장 : 김민영 : 723-4253)
제 목 한나라당에 재차 사과요청 공문 발송
날 짜 1999. 5. 4. (충 /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한나라당에 사과요청공문 재차 발송

일시 및 장소 : 1999. 5. 4 오전 10시 30분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韓明淑)는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난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한나라당에 발송했다.
2. 지난 4월 9일 한나라당의 안택수 대변인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직접 거명하며, 정권의 배후조종으로 정치성명을 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관변단체, 어용단체'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공식 석상에서 반복한 바 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이같은 발언이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규정하고, 한나라당이 반드시 공식사과를 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으며 지난 4월 15일에는 한나라당측에 공문을 통해 참여연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4. 그러나 한나라당은 참여연대의 사과요구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5월 4일 2차 사과요청공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한나라당측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끝.